광주 2차병원 외래진료 잡기도 '하늘의 별따기'

전남대·조선대병원 의료인력 부족 신규 예약 안 받아 2차병원 몰려
응급실도 환자 급증 진료 차질…의정 갈등 장기화 환자 불편 가중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이탈이 장기화됨에 따라 광주지역 일부 2차 병원의 외래 진료 예약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상급병원이 신규 외래진료를 접수받지 않자 2차 병원으로 신규 외래 환자가 몰리면서 진료 예약이 힘들어지고 있다. 2차 병원에 환자가 몰리면서 의료진들의 피로도 가중되고 있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2차 의료기관 19곳(지역응급의료센터 4곳과 지역응급의료기관 15곳)에는 지난달 11일부터 매주 외래환자 1만 2000여명이 진료를 받고 있다.

하루 평균 2차 병원 한 곳당 120여명이 넘는 환자가 오래 진료를 받고 있는 꼴이다.

2차 병원들 관계자들은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상급병원에서 신규 외래 진료를 받지않아 2차 병원에서 도미노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환자들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외래 진료 대기가 길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광주의 한 2차병원에서는 기존엔 환자들이 30여 분 정도 기다리면 의사를 만날 수 있었지만, 최근엔 대기인원이 늘면서 1~2시간 정도 대기하는 실정이다. 2차병원에서도 환자가 한차례 예약을 취소하면 다시 진료를 받는데 2주가 걸린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광주지역 2차 병원인 A병원 관계자는 "대기환자가 많은 날은 진료 접수 마감을 1시간 일찍 당기기 때문에 외래진료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환자들도 있다"며 "응급실에도 하루 평균 20~40명 정도의 환자가 왔었는데 현재 최소 30~50명 정도의 환자가 오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2차 병원인 B병원도 광주지역 대학병원 교수들이 진료를 축소하면서 외래진료 환자들이 크게 늘었다.

B병원 관계자는 "아무래도 대학병원에서 진료받지 못한 환자들이 2차 병원으로 온다. 입원 환자도 기존 대비 60~70명 가량 늘었다"며 "몰려드는 환자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까지는 아니나 부쩍 늘어난 환자들 때문에 의료진들도 피로감을 호소하는 등 힘들어 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학병원 영상의학과 인원 공백으로 CT나 MRI 촬영이 어려워지면서 촬영을 위해 2차 병원을 찾는 환자들도 부쩍 늘고 있다.

하지만, 대학병원과 달리 광주지역 1·2차 병원의 경우 MRI 장비가 없거나 한 대씩 설치된 경우가 대부분이라 촬영이 필요한 환자를 모두 소화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환자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장인어른이 대학병원에서 초진이 어려워 광주 1차 병원에서 MRI를 찍고 간암 진단을 받았다"며 "2차 병원에서 치료를 위해 색전술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진료 일정이 늦어지는 것 같아 고민이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총선 끝, 선거 현수막·벽보 수거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끝난 11일 광주시 북구 광고물관리팀 직원들이 운암사거리에 부착된 선거 관련 현수막과 벽보를 수거하고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전남 선거사범 147명…선거수사 본격화

허위사실유포 22건 가장 많아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종료됨에 따라 경찰이 광주·전남지역 곳곳에서 불거진 공직선거법 위반 고소·고발 사건 등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다.

광주·전남 경찰청은 이번 총선과 관련해 96건(광주 35건, 전남 61건)에 총 147명(광주 53명, 전남 94)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중이다고 11일 밝혔다.

광주경찰은 50건에 69명을 적발·인지하거나 신고받아 이 중 15건 16명에 대해 수사를 종결했다. 전남은 69건 105명의 위법행위를 적발 또는 인지해 이중 8건 110명을 불송치 결정 등으로 종결 처분했다. 전남결창이 수사 중인 선거사범은 유형별로 허위사실유포 22건, 현수막 벽보 훼손 13건, 여론조사위반 12건 등이다. 당선인에 대한 4건의 수사 사항도 포함됐다.

반면 광주경찰은 수사건수만 밝혔다.

이번 선거법 관련 공소시효가 10월 10일까지 라는 점에서 경찰은 8월 11일까지 집중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암투병 끝 숨진 환경운동가 전재산 기부

광주환경운동연합 국순군 회원

17년간 환경보호 활동을 해 온 환경단체 회원이 암투병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전재산을 기증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국순군〈사진〉 회원이 11일 암투병 끝에 영면했다고 11일 밝혔다. 향년 60세.

국씨는 "인간의 삶이 자연환경을 파괴하는데 책임을 느낀다"며 2007년 10월 광주환경운동연합 정기 후원을 시작으로 회원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이후 전국녹색당 탈핵위원장, 핵없는세상 광주전남행동 운영위원으로 영광 한빛원전 안전성 강화를 위한 사고 대응 활동, 에너지 전환 활동 등 다양한 환경 운동을 해왔다.

지난해 7월 암 발병 사실을 알게 된 국씨는 유언장을 통해 광주환경운동연합에 전 재산 기부 의사를 밝혔다. 실제 광주시 동구 소태동 일대 주택과 임야 등 2억 5000만원 상당의 전재산을 기부했다.

광주환경운동 연합은 자체적으로 장례위원회를 꾸리고 12일 오후 7시 30분 광주기독병원 장례식장 고인의 추모식을 개최한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고인의 뜻을 이어받아 생태전환사회를 만드는 환경운동에 소중한 유산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총선 모의투표 했더니…청소년 선택은 달랐다

광주 946명 온라인 투표
당선자 6명 중 2명 바뀌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일 비유권자인 광주지역 청소년 모의투표 결과 이변이 발생했다.

청소년 모의투표가 진행되지 않은 2곳을 제외한 광주지역 6명의 국회의원 당선자 중 '서구을'과 '북구을'에서는 당선자와 다른 후보가 선택됐다.

11일 청소년 모의투표 광주운동본부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일 투표권이 없는 광주지역 청소년(만 9~17세)을 대상으로 한 모의투표가 진행됐다.

모의투표는 실제 투표와 동일하게 5일과 6일 온라인 사전투표, 10일에는 본투표로 진행됐고, 청소년들의 선거구 확인 후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정당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광주지역 청소년 946명이 참여했다.

서구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당선자(40%) 대신 녹색정의당 강은미 후보(42.7%)를 최종 선택했다. 북구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당선자(20%)를 제치고 진보당 윤민호 후보가 50%를 얻어 당선됐다.

서구갑에선 조인철 당선자가 60%를 득표했지만 실제 투표에서 송영길 후보가 2위였던 것과 달리 모의투표에선 국민의힘 하헌식 후보가 25%를 득표해 2위를 차지했다.

동남갑에선 65.1%를 얻은 정진욱 당선자 , 동남을에선 59.2%를 확보한 안도걸 당선자가 선택됐다. 광산을에선 실제 투표 결과와 마찬가지로 민형배 당선자가 62.9%로 당선됐고 새로운미래 이낙연 후보는 15.3%에 그쳤다.

비례정당 투표로는 더불어민주당이 45.8%, 국민의미래 6%, 조국혁신당 5% 순으로 득표했다.

청소년모의투표 광주운동본부는 청소년이 선출한 국회의원에게 당선증을 전달할 예정이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최근 3년 전남 농기계 사고 204건 전국 최다

사망자 31명 등 사상자 249명

최근 3년간 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농기계 교통사고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기계 교통사고는 자동차가 주행하는 일반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중 농기계와 관련된 사고를 가리킨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 광주전남본부는 11일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2020~2022년) 전남 농기계 교통사고가 204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2020년 63건, 2021년 74건, 2022년 67건 등이었다.

같은 기간 전국에서는 2020년 367건, 2021년 364건, 2022년 330건 등 총 1061건의 농기계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전남의 사고 건수는 이 중 5분의 1을 차지해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전남 이외에는 경북(172건), 충남(136건), 경남(133건) 순이었다. 전남 지역 농기계 교통사고 사상자는 2020년 75명(사망 10명 포함), 2021년 95명(사망 14명), 2022년 79명(사망 7명)으로 총 249명 발생했다.

전국 사상자는 같은 기간동안 1346명 발생했으며, 전남 사상자는 전국의 18.4%를 차지했다. 이에 공단은 11일 전남도, 전남도농업기술원, 전남도경찰청, 4개 농업기술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찾아가는 농촌마을 교통안전 지원서비스'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범열 공단 광주전남본부장은 "전남지역이 농기계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고령 사망자가 끊이지 않은 만큼,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농촌지역의 발생하는 교통사고 요인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겠다"라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